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 서사전략 :

‘아마존의 눈물’(MBC)과 ‘아마존’(BBC 2) 비교분석

이종수*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주의 메시지를 담은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 서사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대중서사 전략의 국가별, 제작자별 차별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 MBC의 〈아마존의 눈물〉(2009~2010)과 영국 BBC2의 〈아마존〉(Amazon with Bruce Parry, 2008) 시리즈에 대한 양적 내용분석과 질적 텍스트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유사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형식적 구성요소, 주제, 이야기 구조, 내러티브 양식, 시각적 스타일에서는 차별성이 나타났다. MBC 〈아마존의 눈물〉은 ‘설명적’ 내러티브 양식과 휴먼 드라마적 요소의 융합이 주요한 서사양식으로 나타났으며, BBC 〈아마존〉은 ‘참여적’ 내러티브 양식과 리얼리티 TV(탐사 베리떼)적 요소를 융합한 서사양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시각적 스타일에서도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MBC 〈아마존의 눈물〉에서는 시각적 선정주의와 더불어 은유적 이미지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BBC 〈아마존〉에서는 민속지학적 영상과 사실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대중서사 전략의 특성과 차이점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향후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Key words :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대중서사 전략, 내러티브 양식

* jslee77@hanyang.ac.kr

1. 서론

이미 인간 문명 저 너머의 ‘순수한 자연’이란 것이 존재하기 어렵듯이, 텔레비전이라는 경쟁적 서식처에서 전통적인 자연다큐멘터리의 고요함과 장엄함 역시 사라져가고 있다. 80년대 이후 자연다큐멘터리는 생태계 위기와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¹⁾ 최첨단 카메라 기술을 활용하여 강렬한 스펙터클을 제공하는 대형 자연다큐멘터리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자연다큐멘터리를 오락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새로운 서사전략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의 위기를 다룬 MBC의 <북극의 눈물>(2008), <아마존의 눈물>(2009-2010) 시리즈 등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아마존의 눈물>은 ‘명품 다큐’라는 찬사와 더불어 3부작의 시청률이 20%를 넘기면서, 자연과 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적 장르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아마존의 눈물>은 이색적이고 충격적인 아마존 원시부족의 생활상과 극적인 서사전략이 대중적 인기에게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²⁾

자연다큐멘터리의 장르적 혼합과 서사전략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먼저 자연다큐멘터리 핵심 의제의 변화이다. 60, 70년대 생태주의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은 인간문명과 동떨어진 ‘자율적인 통합체’가 아니라, 인간문명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기 시작한다. 특히 80년대 이후 전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문명에 의한 자연파괴와 생태계 위기는 자연다큐멘터리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Horak, 2006).

자연다큐멘터리의 주요 관심사가 환경문제로 확대되면서, 전통적 자연 다큐멘터리의 표현 양식과 내러티브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 자연과 야생세계에 대한 관찰자적 태도에서 생태계 보존이라는 현실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창자(advocative)적 태도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중적 내러티브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자연의 종말’이라는 내러티브를 통해 자연파괴의 심각성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불편한 진실>(Inconvenient Truth)과 같은 영화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객들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하기도 한다(Malamud, 2008). 한 마디로 자연은 인간 문명의 책임과 관심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다큐멘터리의 장르 변화는 경쟁적 매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오락적 재배치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쟁적 TV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

1) 대표적인 대형 다큐멘터리로는 영국 BBC의 <March of Penguins>, <Winged Migration> 등을 들 수 있다.

2) 이미 한국의 지상파 방송이 <아마존>이라는 주제로 몇 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음에도 이전에는 크게 주목을 끌지 못했다. KBS 수요기획 <최후의 에덴동산 아마존을 가다>가 2부작으로 (1부- 물의 어머니 로 라이마 폭포지대 2007. 8. 29, 2부 분홍돌고래의 나라 2007. 9. 5) 방영되었다. <아마존의 눈물>과 유사한 기획의도로 제작, 방영되었으나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 반해 <아마존의 눈물>은 3부작의 평균 시청률이 20%가 넘는(AGB 닐슨) 다큐멘터리로서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보였으며, 극장판으로도 개봉되어 11일 만에 5만 관객을 돌파하고 10만 관객을 앞두고 있다(2010. 4. 7. 현재).

한 장르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혼합하는 장르 혼종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미 외국의 자연다큐멘터리는 유명인을 현장에 투입하는 기행(travel) 저널리즘, 야생의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장르적 요소와 동물세계의 의인화 전략 등을 통해 오락적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최첨단 CG 기술을 이용하여 드라마틱하게 사라진 자연사를 재구성하는 일종의 '가정법적(speculative)' 다큐멘터리가 등장하기도 한다.³⁾

자연다큐멘터리의 대중화 전략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연과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와, 지나친 오락화, 상업화로 오히려 '환경주의'(environmentalism) 라는 이데올로기를 팔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자연다큐멘터리 장르의 역사적 발전과정, 내러티브와 재현관습에 대한 본격적이고 비판적인 학문적 논의도 축적되기 시작했다(Mitman, 1999; Chris, 2006). 그리고 자연 생태계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원시부족의 재현에 관한 이슈 역시 학문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Fursich, 2002, Raheja, 2007).

이 연구에서는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환경주의 메시지를 담은 자연다큐멘터를 자연/환경 다큐멘터리로 지칭하고, 이 새로운 혼합장르의 서사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서로 다른 국가와 방송제작사에서 취하고 있는 대중적 서사전략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각 국가, 제작사의 다큐멘터리 장르 전통과 환경 이슈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자연/환경 다큐멘터리로 큰 반향을 일으킨 MBC 창사 특집 5부작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2009-2010) 과 영국 BBC2에서 방영한 6부작 다큐멘터리 <아마존> (Amazon with Bruce Parry) (2008) 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아마존의 생태계와 환경문제라는 매우 유사한 주제와 원시부족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MBC와 BBC2의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텍스트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와 방송사의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 서사전략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자연 환경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장르 변화와 스펙터클

1) 자연다큐멘터리 장르 변화 배경과 기존 논의

자연다큐멘터리는 전형적으로 보수적이고 교육적인 장르로 여겨져 왔다. 또한 자연다큐멘터리는 정치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 자연과 야생 동식물에 대한 경외감을 다룬 장르로 여

3) 대표적인 작품으로 BBC의 <Walking with Dinosaurs> (2007) 와 한국의 <한반도의 공룡> (2008) 등을 들 수 있다.

겨져 왔다. 그러나 60, 70년대 정치적, 사회운동적 차원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환경문제와 환경보존에 대한 가치는 자연다큐멘터리의 성격을 점차로 변화시켜왔다.

물론 여전히 전통적 자연다큐멘터리의 관습과 내용을 고수하고 있는 자연다큐멘터리가 존재하고 있다.⁴⁾ 그러나 대다수 자연다큐멘터리가 인간문명과 동떨어진 ‘자율적 총체’로서의 자연에서 ‘인간문명의 피해자’(victim of a civilization)로서의 자연생태계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Horak, 2006). 이전에 문명접촉이 없었던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동물종을 멸종시키는 벌목과 도시 설립 등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최근 많은 자연다큐멘터리의 주요 내용이다.⁵⁾

한편 이러한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자연다큐멘터리의 이야기 전달방식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전통적 자연다큐멘터리의 재현방식은 야생의 고요함과 장엄함을 차분하게 묘사하고, 관객을 적극적 해석자보다는 수동적 관찰자로 남게 하는 것이 주된 표현관습이었다. 즉, 촬영 대상이 카메라의 존재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보이게 ‘프레임’하는 것이 주된 관심이었다. 또한 일반적인 자연다큐멘터리의 서사적 관습(convention)은 특정한 자연 순환(변화하는 계절이나 생명의 주기인 탄생, 성장, 교배, 성숙, 그리고 죽음)을 따라가는 시간적 선형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는 전지전능하고 권위 있는 VO(voice-over) 내레이션과 더불어 제시되며, VO 내레이션은 과학적 지식의 ‘객관적’ 담론과 동물과 자연의 인간화(anthropomorphism)⁶⁾와 더불어 자연다큐멘터를 특징짓는 요소였다(Scott & White, 2003, p. 321).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부분 자연다큐멘터리는 관객들의 적극적 행동개입을 요구하는 환경주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인간문명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생태계와 지구 온난화의 위협을 강조하는 일종의 ‘자연의 종말’이라는 메타 내러티브와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인식과 행동을 촉구하는 도덕적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다(Malamud, 2008).

한편 자연다큐멘터리의 변화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뿐 아니라, 텔레비전 매체의 경쟁적 환경변화와도 연관이 있다. 21세기 경쟁적 TV 스케줄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연다큐멘터리의 ‘오락적 재배치화’ 전략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많은 자연다큐멘터리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새로운 스타일과 접근법을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혼합하여 매력적으로 포장한 자연다큐멘터리가 새로운 트렌

4) 예로, ‘National Geographic,’ ‘Discovery’와 같은 다큐멘터리 전문채널의 대형 블루칩 자연 다큐멘터리를 들 수 있다.

5) 환경관련 사회적 이슈나 ‘환경보존’의 가치에 기초를 둔 ‘환경다큐멘터리’와 ‘자연다큐멘터리’를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최현주, 2009). 실제로 생태학적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기 편성된 환경다큐멘터리인 <환경스페셜>, <하나뿐인 지구> 등의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자연다큐멘터리보다는 ‘자연파괴’의 현장을 고발하는 르포르타주, 탐사형 ‘시사다큐멘터리’적 장르관습을 더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동물의 인간화(anthropomorphism)에 관한 논의에서 스티브 베이커(Steve Baker)는 우리 문화에서 모든 동물들을 ‘디즈니화(Disneyfication)’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의 이미지는 ‘스테레오타입화’ 되어 일종의 시각적 속기(visual shorthand)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2006, Horak).

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Cottle, 2004). 실제로 여행, 모험, 자연사 등의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혼합하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오락적 포맷이 결합된 자연다큐멘터리는 이미 TV 오락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Kilborn, 2006). 자연사 다큐멘터리가 대표적 '고정' 장르로 굳혀진 영국의 경우, 객관적 VO 내레이션으로 진행되던 전통적 자연다큐멘터리 형식에서 벗어나 스타 방송인의 '탐험(모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현대적 시네마 베리떼(cinema vérité)적 모드가 유행하고 있다(Cottle, 2004; p. 96; Horak, 2006).⁷⁾

또한 새로운 기술적 발전으로 자연다큐멘터리는 관객들에게 '특권화된' 관음증적인 시선을 제공하고 있다. 시간경과, 슬로우 모션, 극도의 클로즈업, 광학사진술 등은 동식물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자연에 대한 시각적 통제와 '시각적 권능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렇게 자연을 시각적으로 포착, 기록하는 시각적 기술과 제작과정 자체를 홍보하기도 한다.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과감한 '가정법적(speculative)' 자연다큐멘터리도 바로 이런 기술적 성과를 강조하는 자연다큐멘터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자연다큐멘터리 장르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드만(Mitman, 1999)은 미국의 자연다큐멘터리 필름을 루즈벨트 시대부터 최근까지 역사적으로 추적하면서, 과학적 진정성과 관객들이 원하는 전율적 경이로움 사이에서 자연다큐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크리스(Chris, 2006)는 상업적인 자연 다큐멘터리 필름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환경주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크리스는 자연다큐 필름에서 보여주는 자연이 고정된 재현 관습, 특정 동물에 대한 고정된 내러티브에 의해 구성되며, 계급, 취향, 권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환경 다큐멘터리가 대부분 탈 정치화되어 있고, 사회적 제도 개선보다는 개인적 행동을 촉구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Malamud, 2008).

2) 자연다큐멘터리의 스펙터클(spectacle)

현대 영화담론에서 '스펙터클'은 초기 영화에서부터 신기한 볼거리, 관객에게 감각적, 심리적 충격을 주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를 지칭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완벽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특수효과와 같이, 극도의 사실적 정밀성과 시각적 세련미로 관객을 매혹시키는 시각적 장치들을 의미하고 있다(문재철, 2004). 스펙터클은 내러티브적 목적과는 별도로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위해 기능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지칭하며 이미지 그 자체의 순전한 대담함으로 관객에게 강렬한 감각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시각적 장치의 파워를 말한다.

그러나 스펙터클은 단순히 강렬한 시각적 볼거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 드보르(Guy Debord)는 <스펙터클의 사회> (1994)에서 "현대적 생산조건들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든 삶은

7) 또한 다양한 리얼리티 TV적 요소를 가미하여 원주민과 동물세계와의 상호교류, 활동적인 시퀀스와 극적인 대결을 강조하는 액션중심의 리얼리티쇼 포맷도 인기 포맷으로 등장한다(ex. 'Vets and pets,' 'Vets in Practice'). 이와 같이 다큐쇼프나 리얼리티 TV 요소를 가미하면서 자연다큐멘터리는 변화하는 시청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미학을 발전시키고 있다.

스펙터클의 엄청난 축적으로 나타나며, 한 때 직접적 체험의 대상들은 모두 표상과 이미지로 변해버렸다(p. 1) 고 주장한다.

이러한 스펙터클 개념을 자연다큐멘터리나 인류학적 다큐멘터리를 적용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sight)의 분리와 특권화이다. 결국 스펙터클은 대상화된 세계관으로 나타난다. 영국식민지를 기록하던 빅토리아 시대의 인류학적 사진들은 이러한 스펙터클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대부분의 자연 혹은 인류학적 다큐멘터리 속의 원주민은 서구적 삶과 대조되는 순수함과 단순함을 지닌 '환상적 개인'으로 표현된다. 즉, 원시 자연과 원주민을 서구문명이 잃어버린 순수와 원시적 단순함을 대변하는 '민속지학적 스펙터클'(ethnographic spectacle)로 구성해온 것이다(Raheja, 2007).

최근 들어 많은 문화연구자, 영상 인류학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렇게 스펙터클화된 원시부족의 재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놀리(Nolley, 1997), 뱅크스(Banks, 1994) 등은 인류학적 다큐멘터리에서 구성적 작업을 '은폐하는' 사실주의적 재현 스타일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면, 플래허티(R. Flaherty)의 1922년 <북극의 나눅>(Nanook of the North)의 경우, 장면 연출, 카메라의 숨겨진 지시, 그리고 시퀀스의 서구적 구조화가 거짓된 사실(pseudo-realistic)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한다(Nolley, 1997).⁸⁾

3.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내러티브 양식(mode)

내러티브란 하나의 이야기를 연속된 장면으로 조직화시키는 장치, 전략, 관습을 말하며, 모든 서사물은 이러한 내러티브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중심의 다큐멘터리에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스토리텔링 기법과 내러티브 양식이 존재한다. 내러티브 양식(mode)이란 여러 필름에 광범위하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관습이며, 단순한 기법 혹은 표현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감독의 철학,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주제를 구축하는 방식 등을 포괄한다(Nichols, 1991). 니콜스(Nichols, 2001)는 다큐멘터리의 대표적 6가지 양식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설명적 양식(expository mode): 현실을 VO 내레이션을 통해 직접적으로 설명, 교훈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논쟁적 논리를 강조.
- ② 시적 양식(poetic mode): 현실 이미지들을 재조합. 역사적 물체들을 추상적이고 감상적(서정적)인 형태로 변화시킴.
- ③ 관찰자적 양식(observational mode): 개입하거나 참견하지 않는 카메라로 대상을 관찰

8) 나눅(Nanook)은 일종의 민속지학적 '타자'이며, 서구가 만들어 낸 환상적 에스키모인의 환상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플래허티와의 접촉과 촬영과정에서의 정치경제적 합의는 사라지고 나눅은 영웅적 개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나눅의 어색하면서도 지적 능력이라고는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한 미소야말로 서구가 만들어 낸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일 뿐이다(Rahaja, 2007).

하며, 대상의 일상생활에 직접 들어가는 방식을 강조한다. 해설 없이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기록(일명 '벽위의 파리' 접근법).

④ 참여적 양식(participatory mode): 제작자와 촬영대상간의 상호작용을 강조. 인터뷰나 보다 직접적인 개입행위에 의해 촬영이 이뤄짐. 필름메이커는 그들이 촬영하고 있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들과 경험을 공유.

⑤ 성찰적 양식(reflexive mode):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을 지배하고 있는 가정 및 관습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영화의 현실재현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강조.

⑥ 수행적 양식(performative mode): 제작자 자신이 직접 대상과 접촉하며 나타나는 주관적 또는 표현적 측면과 이에 대한 관객의 반응을 강조. 객관성이라는 관념을 거부하고, 다큐멘터리의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

이와 같은 6가지 양식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양식은 이전 양식의 한계와 제약으로부터 생겨난다. 따라서 역사적, 국가적 맥락에 따라 선호되는 양식이 달라진다.

양식은 어떤 특정 시공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지만, 특정 다큐멘터리 운동보다는 더 널리 퍼져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각각의 양식은 이전 양식의 한계를 지각함으로써,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가능성 및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반응으로서 등장한다. 그렇지만 일단 구축된 양식들은 서로 부분적으로 겹쳐지고 혼합된다.

예를 들면,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는 30년대 40년대 유행한 양식이지만, 여전히 다큐멘터리의 대표적 양식으로 사용된다. 특히 자연,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VO 내레이션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일 정도다. 설명적 양식의 다큐멘터리의 '사실주의적 패러다임'은 지난 50년간의 고급과학 다큐를 생산해온 BBC나 PBS의 가장 중요한 표식(약속어음)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자연, 과학 다큐멘터리의 사실주의적 패러다임은 혁신적인 텔레비주얼 스타일과 대담한 내러티브와 절충되고 있다. 다큐 제작자들은 할리우드 제작물의 화려함에 익숙해진 수용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적 스타일과 스토리텔링 기법을 고민하게 된 것이다.

4.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국가별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 서사전략의 차별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환경주의적 메시지를 담은 두 편의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시리즈물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서로 다른 국가적 맥락하의 두 제작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중 서사전략을 비교하기 위해 아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형식적 구성요소와 소재는 한국, 영국의 제작사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2: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 양식은 한국, 영국의 제작사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3: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시각적 스타일은 한국, 영국의 제작사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이 연구는 최근 한국과 영국에서 동일한 환경주의적 주제로 유사한 소재, 인물, 이슈를 다룬 한국 MBC의 <아마존의 눈물>(2009-2010)과 영국 BBC2의 <아마존>(Amazon with Bruce Parry) (2008)⁹⁾ 시리즈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MBC <아마존의 눈물>과 BBC <아마존>은 각각 5개와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이 가운데 <아마존의 눈물>의 경우, 다큐멘터리 제작과정과 하이라이트 장면을 모은 <프로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한 3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아마존의 눈물>은 MBC 창사 48주년 기념으로 2008년 9월 기획을 시작하여 8개월간의 사전 자료조사, 7개월 동안의 현지 촬영을 거쳐 총 제작비 15억 원을 들여 완성하였다(한국경제, 2010. 2. 19). 참여제작진은 기획, 제작, 연출 2인, 대본, 촬영 4인, 조연출 2인, 취재 1인, 번역 1인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다.¹¹⁾

9) 이후 BBC <아마존>으로 명명함.

10) 각 에피소드의 내용에 관해서는 <http://www.imbc.com/broad/tv/culture/amazon/program/>과 <http://www.bbc.co.uk/amazon/sites/> 참조할 것. MBC <아마존의 눈물>의 프로로그에서 다음과 같이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다. “마지막 녹색원시, 문명의 침입, 원시의 붕괴, 원시의 마지막 기록, ... 아마존의 눈물은 아마존 전역의 인디오를 만났고 그들의 웃음과 눈물을 깊이 있고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 아마존이 사라진다.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밀림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없는 인디오들에게 서구병이 들어와 고통 받고 열대의 밀림에서 아마존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한편 BBC <Amazon with Bruce Parry>는 다음과 같이 탐사목적에 밝힌다. “페루의 안데스산맥 5000미터 고지 네마도메스미, 아마존강의 발원지, 그 곳에서 시작되는 이번 탐사의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이 만들어가는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겁니다. 도보 래프팅, 카누, 팻목, 버스, 릭샤, 비행기, 배, 수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강물을 따라 여행하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계획입니다. 아마존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아마존은 복잡한 곳이다... 숲을 파괴하는 벌목업자들, 광산업자들, 목축업자들, 이곳은 환경전쟁의 최전선이다. 이번 탐사의 목적은 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이 만들어가는 아마존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것입니다.”

11) 이 가운데 9명은 현지로 파견이 되어 김진만 PD팀은 원주민을 중심으로 촬영, 김현철PD팀은 생태계를 중심으로 제작을 하였다, 현지 파견되었던 제작팀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으로 8명이 남성이었으며 생태계 촬영 팀이었던 조연출만 여성이었다. MBC 아마존의 눈물 <http://www.imbc.com/broad/tv/>

BBC <아마존>은 2007년 총 8개월간의 현지 촬영을 포함한 총 9개월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되었으며, 2008년 BBC2에서 방영되었다. 참여제작진은 브루스 패리를 포함하여 총 17명이지만, 진행자인 브루스 패리를 제외하고는 에피소드별로 각각 3명에서 6명이 협력 제작진으로 참여하였다.¹²⁾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형식적 구성요소와 내용의 양적 비교를 위한 샷(shot) 분석은 MBC와 BBC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원시부족의 세그먼트(segment)를 대표적 샘플(representative sample)¹³⁾로 아래와 같이 표집하였다.

- ① 순수 원시부족(문명과 접촉 없음): 조에족 vs. 아추아족
- ② 준 문명화(문명과 접촉-부정적 영향): 마티스족
- ③ 준 문명화(문명과 접촉 - 중립적 영향): 마루보족
- ④ 마미라우아(Mamirua) 자연보호구역 거주 인디오(문명화 & 생태계보존): 자루와족
- ⑤ 파괴 혹은 투쟁중인 원주민: 야노마미족 & 카야포족

(2) 분석 방법

다큐멘터리는 양적,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양적 내용분석에서는 1) 형식적 구성 요소별 지속시간과 샷 수; 2) 내용(소재) 분포를 살펴보았다.

형식적 구성요소는 사전 코딩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ㄱ. 현장필름(recent taped film) :

현장필름은 청각적 요소와의 결합방식에 따라 VO 내레이션과 사운드bite로 분류.¹⁴⁾

VO 내레이션의 경우, a) 진행자, b) 전문해설가 내레이션으로 세부 분류.

사운드 bite의 경우, a) 진행자 현장교류, b) 원주민, c) 동물, 자연, d) 기타 현장음으로 세부분류

ㄴ. 진행자 직접화법(direct address) :

진행자 직접화법은 사회자가 카메라를 보고 직접 말을 하는 형식을 말한다.

ㄷ. 인터뷰 :

인터뷰는 a) 원주민, b) 현지전문인으로 분류하였다.

ㄹ. 구성화면(corroboration shot) :

지도, 스틸사진, CG 등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culture/amazon/program/

12) 브루스 패리는 이미 BBC에 <원시부족>(Tribe) 라는 작품으로 인기를 끈 개인 탐험가이자 다큐제작자이다. <아마존>의 제작진은 제작 및 연출 1인, 연출 3인, 촬영 2, 음향 2인, 조연출 5인, 연구자 3인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남성 9명, 여성은 8명). 브루스 패리를 제외하고 현장에 투입이 된 제작진의 인원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각각 에피소드별로 협력인원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6명으로 소개되어 있다 (<http://www.bbc.co.uk/amazon/sites/team/index.shtml>).

13) 대표성 있는 부족은 각 방송사의 웹사이트 정보와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반복적 시청을 통해 선정하였다.

14) VO 내레이션(voice-over narration)은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화자(話者)가 해설하는 것이고, 사운드bite(soundbite)는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의 말, 동물의 소리, 현장음 등이 들리는 것을 말한다.

양적분석의 코딩은 4명의 코더들에 의해 2010년 3월 2일-10일까지 이뤄졌으며, 코더 간 상호일치도는 95%였다.¹⁵⁾

한편 질적 분석은 채트만(Chatman, 1978)의 서사분석틀과 내러티브 양식과 시각적 스타일에 관한 니콜스(Nichols, 2001)와 디크(Dijk, 2006)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연다큐멘터리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였다. 내러티브 분석은 크게 '이야기'(story; 내용)와 '담화'(discourse; 표현)의 영역으로 나뉜다. 여기서 '이야기' 분석은 이야기 기본요소(사건, 인물, 배경)와 플롯(이야기 기본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살펴본다. 담화분석은 이야기가 어떤 시청각적(언술적, 영상적 표현형식) 표현을 통해 전달되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측면을 계열체적 요소와 통합체적 구조로 나눠 살펴본다. 계열체적 분석을 통해 이야기의 구조적 요소들이 무엇이며, 이것이 스토리의 전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통합체적 분석에서는 개별 이야기 요소들의 연결구조를 밝히고자 하며 담화적(표현적) 측면에서는 '내러티브 양식'과 '시각적 스타일'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이 연구의 목적인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차별적인 대중 서사전략을 밝히기 위해, 어떤 내러티브 양식과 시각적 스타일이 사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내러티브 양식은 Nichols의 6가지 양식(설명적/ 관찰적/ 상호작용적/ 성찰적/ 참여적/ 수행적 양식)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각적 스타일은 은유적(metaphoric) 이미지와 현실증거적(evidential)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5. 분석 결과: 아마존의 눈물(MBC)과 아마존(BBC2) 비교 분석

1) 양적 분석 결과

(1) 형식적 구성요소 분포

〈표 1〉은 〈아마존의 눈물〉과 〈아마존〉에서 동일한 부족을 다룬 세그먼트의 형식적 구성요소별 시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MBC의 경우, 전문해설자(김남길) VO 내레이션이 있는 현장필름이 전체 57.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부족별로는 조예족 58%, 마티스족 49%, 마루보족 44.8%, 자루와족 77.3%, 야노마미족 58%). BBC 역시 진행자인 브루스 패리의 VO 내레이션이 깔린 현장필름이 전체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부족별로는 아추아족 65.3%, 마티스족 42.3%, 마루보족 29.8%, 자루와족 47.9%, 카야포족 28.9%). 그러나 MBC와는 달리 BBC는 진행자가 직접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직접 화법이 전체 13%를 차지했다

또한 BBC와 MBC의 차별성은 진행자가 현장에서 원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는 장면의 유무

15) 코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코딩 작업에서 훈련된 4명의 코더의 상호일치도(percent agreement)를 체크하였으며, 실제 코딩작업에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와의 상호토론을 통해 결정했다.

에서도 나타난다. BBC에서 진행자 브루스 패리가 원주민과 교류하거나 아마존 풍경에 감탄하는 모습을 담은 현장 사운드 바이트는 전체의 18%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하지만 MBC의 본편 에피소드에서는 제작진과 원주민과의 교류를 담은 부분은 등장하지 않는다. 16) 한편 MBC는 VO 내레이션 없이 원주민(22%)과 동물·자연(7.6%)만 나오는 사운드바이트의 비율이 BBC보다 약 2배가량 높게 나타난다.

〈표 1〉 형식적 구성요소별 시간

단위 시간배분(%)

		진행자 직접 화법	현장필름						인터뷰		구성 화면 및 기타	총 시간
			Voice over Narration		Sound Bite				원주민	현지 전문인		
			진행자	전문 해설자	사회자 현장 교류	원주민	동물 자연	현장음 및 기타				
S1	MBC 조예족	- (0.0)	- (0.0)	7'42" (58.0)	0 (0.0)	2'27" (18.5)	2'13" (16.7)	0'09" (1.0)	0'45" (5.7)	- (0.0)	- (0.0)	13'16" "
	BBC 아추아족	0'46" (5.4)	9'18" (65.3)	0 (0.0)	1'02" (7.3)	1'28" (10.3)	0'08" (0.9)	0'03" (0.4)	1'29" (10.4)	- (0.0)	- (0.0)	14'14"
S2	MBC 마티스족	- (0.0)	- (0.0)	8'14" (49.5)	- (0.0)	5'29" (33.0)	1'42" (10.2)	0'18" (1.8)	0'54" (5.4)	- (0.0)	- (0.0)	16'37"
	BBC 마티스족	1'58" (13.5)	6'09" (42.3)	0 (0.0)	2'54" (20.2)	0'47" (5.4)	0'23" (2.6)	1'33" (10.6)	0'05" (0.6)	0'35" (4.0)	0'08" (0.9)	13'55"
S3	MBC 마루보족	- (0.0)	- (0.0)	4'12" (44.8)	- (0.0)	3'51" (41.0)	0'07" (1.2)	0'19" (3.4)	0'28" (5.0)	- (0.0)	0'26" (4.6)	9'16"
	BBC 마루보족	3'24" (20.5)	4'57" (29.8)	- (0.0)	3'08" (18.9)	4'42" (28.3)	0'19" (1.9)	0'03" (0.3)	0'03" (0.3)	- (0.0)	- (0.0)	16'36"
S4	MBC 자루와족	- (0.0)	- (0.0)	7'41" (77.3)	- (0.0)	1'30" (14.8)	0'32" (5.3)	- (0.0)	0'16" (2.6)	- (0.0)	- (0.0)	10'09"
	BBC 자루와족	2'36" (17.9)	6'57" (47.9)	- (0.0)	1'06" (7.5)	0'31" (3.5)	1'31" (10.4)	1'03" (7.2)	0'44" (5.0)	- (0.0)	0'02" (0.2)	14'30"
S5	MBC 야노마미 족	- (0.0)	- (0.0)	4'45" (58.0)	- (0.0)	0'12" (2.2)	0'24" (4.9)	0'12" (2.4)	1'15" (15.3)	- (0.0)	1'24" (17.1)	8'11"
	BBC 카야포족	1'55" (10.8)	5'07" (28.9)	- (0.0)	6'16" (35.4)	2'40" (15.1)	0'17" (1.6)	0'10" (1.9)	1'08" (6.4)	- (0.0)	0'09" (0.8)	17'42"
M B C		0	0	57.5%	0	22%	7.6%	1.7%	6.8%	0	4.3%	100%
B B C		13.6%	42.9%	0	18%	12.5%	3.3%	4%	4.5%	0.8%	0.4%	100%

16) 물론 MBC 〈아마존의 눈물〉도 원주민과의 교류장면이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에는 나오지만,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3편의 에피소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형식적 구성요소별 차별성을 살펴보면, MBC는 전문해설자의 VO 내레이션을 주축으로 현장을 제작진의 개입없이 직접 전달하는 원주민만의 사운드바이트를 중심으로 이뤄져있다. 한편 BBC는 진행자의 VO 내레이션 뿐 아니라, 진행자의 ‘현장 경험과 참여’를 강조하는 직접화법, 현장교류 사운드 바이트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샷 평균 지속시간

〈표 2〉는 MBC와 BBC의 구성요소별 샷의 평균 지속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장 필름의 경우, VO 내레이션이 있는 경우와 사운드 바이트 모두 MBC가 BBC보다 샷의 지속시간이 길다. 특히 BBC의 경우, 진행자가 원주민과 교류하는 장면이나 진행자 VO 내레이션이 깔린 현장필름의 경우, 3.72초와 4.77초로 MBC의 원주민 사운드 바이트인 6.48초와 전문 해설자 VO 내레이션 6.47초보다 훨씬 짧은 샷의 지속시간을 보여준다. 특히 MBC의 동물과 자연의 사운드바이트 화면은 8.87초로 BBC의 4.56보다 훨씬 긴 샷 지속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MBC의 경우 총 분석대상이 된 546개 샷의 평균 샷 길이는 6.01초였고 BBC는 총 949개 샷의 평균 샷 길이는 3.62초로 나타났다. 이는 BBC가 진행자 직접화법(6.01초)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MBC보다 거의 2배는 빠른 템포로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구성요소별 샷 평균 지속 시간

단위: 초(Shot의 수)

		진행자 직접화 법	현장 필름					인터뷰		구성 화면 및 기타	평균 초 (총 샷)	
			Voice over Narration		Sound Bite							
			진행자	전문 해설자	사회자 현장 교류	원주민	동물 자연	현장음 및 기타	원주민			현지전 문인
평균 시간 및 Shot 수	MBC	-	-	6.47 " (309)	-	6.48 " (133)	8.87 " (43)	4.65 " (12)	7.40 " (30)	-	2.2 " (19)	6.01 " 546
	BBC	6.01 " (113)	4.77 " (409)	-	3.72 " (178)	5.56 " (125)	4.56 " (38)	3.93 " (41)	5.31 " (35)	1 " (7)	3.8 " (3)	3.62 " 949

(3) 내용(소재) 분포

〈표 3〉은 BBC와 MBC가 동일한 부족을 다뤘음에도 내용(소재) 분포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로 원주민의 사냥, 요리, 섭식, 일상 등의 소재를 다룬 비율은 MBC가 BBC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MBC에서의 조예족은 87.32%, 마루부족은 88.30%가 원

주민의 의식주와 일상을 다룬 데 비해, BBC는 아추아족 28.57% 마티스족이 11.11%, 등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MBC는 동식물을 개별적으로 다룬 경우가 BBC보다 많았다.

BBC가 MBC에 비해 많이 사용한 소재는 앞서 형식적 구성요소에서 나타났듯이, 진행자의 현지경험과 현지 원주민과의 교류(마티스족 40.21%, 아추아족 36.06%, 카야포족 31.82%, 마루보족 25.23%, 자루와족 19.71%)가 소재별 구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행자가 원시부족 마을을 찾아가는 여정과 소감 등이 많이 등장한 때문으로 보인다.

전체 에피소드의 말미에 등장하는 외부 문명의 피해를 입은 야노마미족(MBC) 과 카야포족(BBC)의 경우에도 소재별 차별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MBC의 야노마미족은 원주민이 확실 되는 비극을 포함하여 원주민 피해가 42.47%를 차지한 반면, BBC의 카야포족은 원주민 피해는 12.12%이고, 오히려 외부문명에 저항하여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지키려는 제식, 축제, 정체성 표현 행위 등이 46.99%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러한 내용적 분포를 살펴보면, MBC의 경우 문명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 원시 부족의 경우,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원시부족의 삶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문명화의 피해를 받은 부족의 경우 비극적 피해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BC는 원시부족을 독자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진행자의 부족 방문이나 교류 등의 문화 체험적 내용을 많이 다룬 것으로 보인다.

〈표 3〉 방송사별 소재 비율

단위: % (Shot의 수)

	S1		S2		S3		S4		S5	
	MBC 조에족	BBC 아추아족	MBC 마티스족	BBC 마티스족	MBC 마루보족	BBC 마루보족	MBC 자루와족	BBC 자루와족	MBC 야노마미족	BBC 카야포족
사냥	20.42% (29)	0%	23.03% (38)	0%	15.96% (15)	3.60% (8)	56.76% (42)	17.73% (36)	6.85% (5)	0%
작농 및 채집	0%	2.04% (3)	0%	0%	14.89% (14)	12.16% (27)	0%	0%	0%	6.57% (13)
요리	16.20% (23)	0%	4.24% (7)	0%	8.51% (8)	0%	0%	0%	0%	2.02% (4)
섭식	11.27% (16)	0%	7.27% (12)	0%	0%	3.15% (7)	0%	0%	0%	2.53% (5)
제식	0%	14.29% (21)	19.39% (32)	5.29% (10)	0%	43.69% (97)	0%	0%	2.74% (2)	13.64% (27)
축제	0%	5.44% (8)	0%	0%	4.26% (4)	0%	0%	0%	0%	5.05% (10)
원주민 의 일상	26.75% (38)	6.80% (10)	9.09% (15)	5.82% (11)	38.30% (36)	4.05% (9)	0%	8.37% (17)	15.07% (11)	3.54% (7)
정체성 행위 ¹⁷⁾	12.68% (18)	0%	0.61% (1)	0%	6.38% (6)	2.70% (6)	0%	0%	0%	13.64% (27)
소계	87.32%	28.57%	63.63	11.11%	88.30%	69.35%	56.76%	26.10%	24.66%	46.99%

〈표 3〉 계속

단위: % (Shot의 수)

	S1		S2		S3		S4		S5	
	MBC 조예족	BBC 아추아족	MBC 마티스족	BBC 마티스족	MBC 마루보족	BBC 마루보족	MBC 자루와족	BBC 자루와족	MBC 야노마미족	BBC 카야포족
원주민 피해	0%	8.84% (13)	24.85% (41)	24.87% (47)	8.51% (8)	0%	0%	0%	26.03% (19)	12.12% (24)
자연 파괴	0%	1.36% (2)	0%	0%	0%	0%	0%	0%	16.44% (12)	0%
문명화 의 영향	0%	0%	4.85% (8)	0%	0%	0%	0%	0%	0%	0%
소계	0%	10.20%	29.70%	24.87%	8.51%	0%	0%	0%	42.47%	12.12%
동·식물	9.86% (14)	0.68% (1)	3.64% (6)	0%	0%	0%	12.16% (9)	13.30% (27)	0%	1.52% (3)
전체 풍경	2.82% (4)	23.81% (35)	3.03% (5)	19.05% (36)	3.19% (3)	5.41% (12)	12.16% (9)	22.17% (45)	2.74% (2)	7.07% (14)
소계	12.68%	24.49%	6.67%	19.05%	3.19%	5.41%	24.32%	35.47%	2.74%	8.59%
진행자 현지 교류	0%	17.69% (26)	0%	26.98% (51)	0%	7.66% (17)	0%	1.48% (3)	0%	15.66% (31)
진행자 현지 소감	0%	18.37% (27)	0%	13.23% (25)	0%	17.57% (39)	0%	18.23% (37)	0%	16.16% (32)
소계	0%	36.06%	0%	40.21%	0%	25.23%	0%	19.71%	0%	31.82%
현지노 동자	0%	0%	0%	0%	0%	0%	18.92% (14)	0%	20.55% (15)	0%
전문가	0%	0%	0%	4.23% (8)	0%	0%	0%	18.27% (38)	0%	0%
소계	0%	0%	0%	4.23%	0%	0%	18.92%	18.27%	20.55%	0%
기타	0%	0.68% (1)	0%	0.53% (1)	0%	0%	0%	0%	9.59% (7)	0.51% (1)
소계	0%	0.68%	0%	0.53%	0%	0%	0%	0%	9.59%	0.51%
총합계	100% (141)	100% (146)	100% (164)	100% (188)	100% (94)	100% (213)	100% (74)	100% (202)	100% (73)	100% (197)

17) 정체성 행위는 부족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신체적 표시(예를 들면 입술에 뽀뚜루를 꽂는 등)나 행위 등을 말한다.

2) 질적 분석 결과

(1) 스토리 & 기본 서사 구조

MBC의 <아마존의 눈물>은 인간문명이 가져온 ‘원시의 붕괴’와 ‘자연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뤄져있다. 원시의 붕괴 현장은 아마존의 자연과 원시부족의 삶이다. 기본 플롯은 순수하고 자유로웠던 아마존 원주민과 동물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아마존의 파괴는 결국 환경재앙과 전체 인류의 삶까지 비극에 이르게 된다는 묵시론적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자연’ 대 ‘인간문명,’ 순수 대 환경오염, 피해자(아마존 원주민) 대 가해자(서구인)의 이분법적 구도로 짜여있다. 여기서 원시부족과 생물들은 자연, 원시, 자유로움, 순수함 등의 긍정적 이야기 요소로, 서구인, 도시인 등은 물질문명, 환경파괴, 탐욕 등의 부정적 이야기 요소로 이항 대립되고 있다.

<아마존의 눈물>에 등장하는 다양한 이야기 요소들(인물, 사건, 배경)은 하나의 선형적인 내러티브 전개를 위해 정교하게 선택, 배치되어 있다. 즉, 통합체적 이야기 구조는 순수 원주민 → 문명화 중도과정 → 문명화로 인한 타락 → 파괴된 원주민의 삶, 풍요의 땅에서 ‘멸종의 땅’으로의 붕괴하는 위기 내러티브로 이뤄져있다. 이러한 서사적 전개는 각 에피소드의 오프닝과 브릿지에 원시 인디오의 모습을 상징하는 아마존 생물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복잡다단한 아마존 환경 파괴의 현실을 ‘순수 원시의 상실과 파괴’라는 단순하면서도 비극적인 이야기로 엮어내는 내러티브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BBC의 <아마존>은 브루스 페리라는 저널리스트 탐험가의 아마존 원시부족과 생태계에 대한 일종의 민속지학적 기행담이다. 기본 플롯은 이방인 서구의 개인탐험가가 낯선 타지의 원시부족을 방문,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고, 환경파괴의 원인을 찾아보면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는 일종의 오딧세이적 여행담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열체적 구조로는 ‘피해자’ ‘가해자’라는 이분법적 선악구도보다는, 아마존 지역의 ‘내부인’과 ‘외부인’이라는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구도를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외부인은 환경파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석유업자들, 벌목업자들, 광산업자들, 목축업자들)이지만, 진행자 브루스 페리가 내부인과 외부인의 양쪽을 동시에 방문하고 그들의 상반된 견해를 그대로 전달하는 구도로 진행된다. 특히 중요한 존재는 이 양 쪽 진영의 ‘매개(mediate)인’으로서의 다크 제작자 브루스 페리 자신이고, 그는 이야기 전개를 이끌어가는 핵심적 인물로 등장한다.

통합체적 이야기 구성은 진행자 브루스 페리가 아마존 강을 따라 새로운 원주민 마을의 도착 → 체험 → 떠남의 구조로 이뤄져있다. 전체 에피소드 구성과 조직에도 잘 드러나듯이, BBC <아마존>에서 서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진행자 브루스 페리의 이동 시퀀스라고 할 수 있다. 아마존 강을 따라 이동하는 브루스 페리의 이동 시퀀스는 주로 원주민 마을 → 자연 파괴 현장 → 원주민 마을로 이어져있다. 그의 여정은 미리 짜여 있기보다는, 직접 목격한 환경파괴 현장(기름이 떠가는 강물)이나 외부 문명과의 접촉으로 고통 받는 인디오들의 문제(질병)를 접하고, 그 원인과 해답을 찾기 위한 일종의 ‘탐사 베리떼’(investigative verite)의 형태

를 띠고 있다. 그리고 이 탐사의 시작과 끝이 되는 이동 시퀀스에서 진행자는 현재 방문할 마을이나 주요 이슈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소감을 전달한다. BBC <아마존>에서도 <아마존의 눈물>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이야기 요소(마티스족, 마루보족, 마미라우라 자연보호구역, 금광, 목축업, IBAMA)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요소들은 비극적 위기감을 고조시키기 위해 선형적으로 배열되기 보다는, 다중 에피소드(multi-episode)로 니열하는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극적이고 강렬한 감정적 몰입보다는 다큐 진행자의 아마존 원시부족 문화와 생태계를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2) 내러티브 양식과 대중 서사 전략

가. <아마존의 눈물>(MBC): 설명적 양식과 휴먼 드라마적 요소의 융합

<아마존의 눈물>은 기본적으로 해설자의 VO 내레이션이 중심이 되는 설명적 양식을 취하고 있다. 설명적 양식은 TV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표적 양식으로, 현실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면서 구두적 해설과 논쟁적 논리를 강조한다. 또한 내레이션을 통해 교훈적 메시지를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양식이다. 대부분의 설명적 양식은 ‘신의 목소리’의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데, 대체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는 권위 있는 해설자의 목소리를 통해 이 전통은 강화되어 왔다(Nichols, 2001, p. 76).

그러나 설명적 양식은 과연 어떤 종류의 내레이션(목소리)이나에 따라 전체 톤이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아마존의 눈물>은 전통적 다큐멘터리의 권위 있고 중립적인 해설가의 목소리가 아닌, 최근 사극 드라마에서 인기를 끈 배우(김남길)의 내레이션을 통해 친밀감을 강화하는 대중서사 전략을 사용한다. 특히 김남길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아래와 같은 극적인 내용에서 비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이다.

고무나무는 유럽인들의 배를 채웠지만 원주민들에게는 눈물이 되었습니다.

-2부 마루보족 도입부분-

아마존에서 43억년을 살아오던 거대화석 뼈라루꾸 그들이 유명하던 위대한 낙원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2부 오프닝시퀀스-

아마존의 딸로 태어난 릴리아니아에게 아마존은 더 이상 따뜻한 품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2부 마루보족 시퀀스 엔딩-

눈이 부시도록 푸른 아마존은 풍요로운 자연의 보고, 하지만 그 풍요로움은 인간의 욕망을 부르고 아마존은 비극을 부릅니다.

-2부 오프닝 시퀀스-

아쿤슈족의 슬픈 이름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입니다.

-3부 소 목장 시퀀스, 아쿤슈족-

특히 아마존 환경파괴의 '비극성'이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부분에서는 해설자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자막만 나온다. '아마존의 눈물'을 상징하는 야노마미족의 마지막 씬에서는 야노마미족의 어머니와 아기 사진, 아기 사진 클로즈 업, 전통복장 남자의 사진 위로 침묵 속에서 다음과 같은 자막이 나온다.

야노마미는 지금 시들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탐욕, 개발,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 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은 곧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결국 당신들이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야노마미 부족추장, 바비 코페나와-

그 뒤를 이어, "마지막 원시의 땅 아마존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에피소드가 끝난다.

VO 내레이션과 더불어 극적인 음향효과 역시 스토리텔링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물론 현상음과 배경음악은 일반적으로 자연다큐의 주요 구성요소이며, BBC <아마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의 눈물>에서는 비장함과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배경음악과 '연출된' 음향효과가 많이 사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야노마미족의 빠뜨리뇨의 인터뷰에서다. "아버지 포함해 4명에게 총을 쏘어요."하는 말 바로 다음에 숲을 배경으로 총소리가 4번 들리면서 비극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3부). "아마존의 생명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하는 내레이션에 이어 숲 속에서 총소리, 원숭이 울음소리, 툽질 소리 등과(3부 오프닝 시퀀스), 금광에서 흙이 무너지는 현상음, 황금을 녹이는 불 소리(3부) 등이 불안감과 위기감을 고조시킨다.

한편 <아마존의 눈물>은 각 부족의 이야기나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몇몇 인물을 주요 캐릭터로 부각시키는 휴먼드라마로 구성한다. 조예족의 경우, 부인이 셋인 최고의 사냥꾼 모닌을 중심으로 모닌의 여동생 투짜와 그의 두 남편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와우라족에서는 13세의 막 성인식이 끝난 아름다운 소녀 야물로와 그의 가족, 마티스족에서는 공예품을 파는 이반슈누와 서구 문명인들에게 전염된 간염으로 죽어가는 비나, 마루보족에서는 고아 소녀 릴리아나가 주요캐릭터로 등장한다. 자미나와족은 밀림을 떠나 도시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마르깡야 할머니, 도시에서 병을 얻고 밀림으로 돌아와 치유한 알리시아 추장을, 야노마미족에서는 백인 금광부들에게 아버지를 잃은 빠뜨리뇨 등을 주요 캐릭터로 설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다.

동물과 자연 역시 의인화되어 내러티브적 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자연다큐멘터리에서 동물과 자연의 인간화(anthropomorphism)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서사 장치이다(Scott & White, 2003, p. 321). 그러나 <아마존의 눈물>의 경우, 동식물은

매 에피소드의 시작과 중간부에 원시부족과 아마존 밀림의 환경파괴에 대한 상징적 아이콘으로 배치되어 있다. 아나콘다와 슬로스는 원주민을 의인화하고 있고,¹⁸⁾ 거대 물고기 뼈라루꾸와 분홍돌고래 보푸 대 난폭한 물고기 뼈라냐(2부), 우아까리 원숭이 대 울리 원숭이(3부)는 온순한 아마존 원주민과 난폭하고 파괴적인 백인정복자로 의인화되어 있다.¹⁹⁾

나. <Amazon with Bruce Parry>(BBC): 참여적 양식과 리얼리티 TV적 요소의 융합

BBC <아마존>은 진행자가 아마존 원주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일상에 참여하는 '참여적' 내러티브 양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적 양식은 주로 인류학적 전통의 민속지학적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사용되는 양식으로 타문화권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양식이다. 참여적 양식에서는 현장에 존재하는 제작자나 사회자의 모습이 비취지고, 진행자가 직접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직접화법'(direct address)으로 관객과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낸다. VO 내레이션 역시 직접화법으로 말을 건넨 진행자의 목소리로 이어지므로, 진행자와 현장의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관객들이 '대리경험'하게 할 수 있는 내러티브 양식이다(탐사적 베리테와 1인칭 양식의 결합).

BBC <아마존>에서는 진행자 브루스 패리가 원주민의 축제에 참여하고, 원주민 전통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샤머니즘적 제식에 참여하는 장면도 자주 나온다. 아추아족의 아유와스카 의식, 마루보족의 주술사에 의한 치료의식, 카야포족의 전통의식에 참여하는 장면들은 타문화를 이해하고 상호교류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타문화경험에서 브루스 패리의 '통과의례적' 고통이나 우연한 실수 등은 다큐멘터리의 리얼리티 TV적 재미를 준다. 진행자가 아추아족의 샤머니즘적인 아유와스카 의식에 참여해 아유와스카 즙을 힘들게 마시고, 마루보족의 투칸다라 의식에 참여해 개미 침을 맞고 아파하며, 로테오 경기에 참여해서 소에 올라타자마자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사건 등은 필름 메이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현장과 부딪히는 직접성과 리얼리티의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리얼리티 TV적 요소는 돌발 상황에서 더욱 그 직접성과 현장감을 강조한다. 방문 원주민 부

18) “길이가 최장 2미터에 무게가 100킬로그램이 넘는 거대화석이 뼈라루꾸, 하지만 뼈라루꾸는 남획으로 인해 자연상태에서는 보기 힘든 어종이 됐습니다. 이제는 양식장에서 키워지다 때가 되면 팔려가는 신세.. 아마존에서 4억년을 살아온 뼈라루꾸, 그들이 유명하던 위대한 낙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부 오프닝) 별목 되는 나무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슬로스- 사오백년을 넘게 밀림에 뿌리내리며 살아온 사마우마 나무도 요란한 툽질소리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쓰러지는 것은 한그루의 나무들만은 아닙니다. 숲 전체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쓰러집니다. (3부 오프닝) 불타는 숲에서 나무에 매달린 채 피로워하는 슬로스 (3부)

19) “브라질의 아마존에만 서식하는 우아까리는 독특한 모습만큼이나 희귀한 원숭이입니다. 우아까리는 얼마 전에 남편을 잃고 무리 중에 혼자가 됐습니다. 아마존의 생명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외로운 우아까리는 남은 생을 울리 원숭이들에게 의탁해야 합니다(나무 쓰러지는 모습을 두려운 눈으로 보고 있는 우아까리 원숭이 CU). 숲 전체가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쓰러집니다(3부 오프닝 시퀀스).

족에서 쫓겨나거나, 이동 도중 길이 막혀서 래프팅하면서 강을 따라 내려가고, 배가 고장 나 계획을 변경해 카누로 이동하고, 인디언보호국 직원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최근에 발견된 원주민 부족을 찾아 나섰다가 약진후에 연료가 떨어져 되돌아가려는 장면(에피소드2) 제작진이 중병에 걸려 도중에 후송되는 상황 등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적 요소이다.

BBC <아마존>에서는 진행자가 원주민이나 현지노동인과 동일한 체험을 하는 장면들도 많이 등장한다. 원주민들과 함께 카이만 악어와 빠라루꾸 사냥에 동행하기도 한다. 흥미로운 것은 원주민뿐 아니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는 집단들과의 접촉과 교류도 이뤄진다는 점이다. 코카인 베이스 생산지인 보씨를 찾아가고, 벌목꾼의 생활을 체험하기도 하며, 금광현장에서 광부로 일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또한 IBAMA와 함께 직접 불법 제재소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에피소드 5). 진행자가 아마존 환경파괴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보이고는 있지만, 제작자는 단지 그곳의 상황을 전달하고, 양쪽 입장을 경청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마존 개발에 반대하고 전통문화를 고수하려는 원주민과 아마존 개발에 찬성하는 양쪽 입장 모두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 숲을 파괴하는 코카를 불법재배하려는 원주민과 그들을 단속하는 경찰, 아추아족과 그들의 전통적 삶을 파괴한 '그들의 숲에 몰래 침입한 악령'으로 인식되는 석유회사 사람들과 목장주와의 인터뷰도 병렬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벌목꾼을 찾아가는 이동 시퀀스에서 양쪽 입장을 모두 이해하려는 진행자의 태도가 잘 드러난다. "원주민들과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봐야 할 것 같아... 벌목꾼들도 약당이 아니고 힘든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고 소감을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현장참여와 상호교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시작과 끝에서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방문자', '탐험가'로서의 그들과의 '거리두기'를 고수한다. 원주민의 문화와 환경전쟁의 현장을 증언하는 것으로 다큐 제작자의 임무는 완수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아마존 방문을 마치는 마지막 장면에서도 어떤 단정적 선언보다도, '환경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아마존 원주민이 스스로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다.

(3) 시각적 스타일

가. <아마존의 눈물>(MBC): 시각적 선정성 & 은유적 이미지

대부분의 자연다큐멘터리는 관객들에게 '특권화된' 관음증적인 시선을 제공한다. 시간경과, 슬로우 모션, 극도의 클로즈업, 광학사진술 등은 식물과 동물세계의 현실을 실제 맨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그려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첨단 인간문명 기술의 산물인 고감도 카메라는 원시 자연이나 원시부족의 삶을 포착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는 수단이자, 자연다큐멘터리의 '스펙터클' 그 자체가 된다.

<아마존의 눈물>에서는 원시부족의 나체나 특이한 풍습 등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내고 있다. 조예족의 경우,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성기, 그리고 여자의 가슴이 빈번하게 노출되고 클로즈업 숏도 많이 등장한다. 또한 1부와 2부에 걸쳐서 나오는 와우라족 시

퀵스이션 남자들을 공격하는 여자들의 전통의식 장면에서, 남자의 성기부분을 비추는 클로즈업 샷을 길게 보여주고, 우카우까 축제에서도 남자들과 여자들의 성기와 가슴의 노출장면이 많이 등장한다. 특히 와우라족 시퀵스에서 주요캐릭터로 나오는 13세 소녀 야물루의 가슴과 하반신이 자주 노출된다.

또 원주민들의 사냥, 요리장면에서 잔혹한 내용이나 클로즈업 샷이 많이 등장하다. 아르다밀로의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 요리하는 장면, 사냥한 원숭이와 사슴을 통째로 불에 그슬려 털을 벗겨내고 요리하는 장면, 악어의 목을 자르는 장면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²⁰⁾ 3부에서도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 도축되어 죽어 올라온 소의 다리 등을 클로즈업으로 불필요하게 강조한다. 그야말로 문명과 대비되는 ‘날 것’으로의 원시성이나 환경파괴의 잔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각적 센세이션널리즘이다. 반면, BBC의 경우에는 동물 사냥장면이 많지 않았지만, 동물을 직접 사냥하는 장면이 나올 때도 동물의 고통 받는 모습은 아주 짧게 보여주거나 모자이크로 처리하였다.

〈아마존의 눈물〉의 또 다른 대표적 스타일은 ‘은유적 이미지’의 사용이다. 코너(Corner)에 의하면 다큐멘터리의 시각적 이미지는 현실의 증거적 표징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은유적 상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아마존의 눈물〉에서는 동식물의 시각적 이미지가 각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아마존 원시부족과 환경파괴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은유적 이미지로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순수 원주민을 상징하는 거대 물고기 빠라루꾸와 아나콘다, 환경파괴의 위기에 처한 아마존 원시부족의 삶은 느림보 초식동물 슬로스, 희귀 원숭이 우아까리와 동일시되고 육식을 하는 난폭한 빠라나는 백인 정복자를 상징한다. 이 밖에도 인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식물 이와야스카는 아마존 자연의 치유성을, 벌목되는 나무나 고무나무 등은 백인 침입자에 의해 파괴당하는 원주민의 생존위기를 상징하는 식물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나. 〈Amazon with Bruce Parry〉(BBC) : 복합적 원주민 이미지와 사실증거적 이미지

BBC의 경우 원시부족의 샤머니즘 의식과 축제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샤머니즘 의식에서의 원시부족의 이미지는 고전적 인류학적 다큐멘터리에서처럼 카메라를 의식하여, 어색하면서도 순진무구한 미소를 띠고 있는 원시부족의 이미지는 아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문화적 축제와 의식에 몰두하고 있거나, 외부인을 경계하는 원주민의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자주 등장한다.

전체 시리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등장하는 이미지는 어린이들의 클로즈업이다. 특히 브루스 패리가 새로운 마을에 진입할 때, 외부인들을 경계하는 듯 겁먹은 눈으로 보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클로즈업으로 자주 등장한다. 또 아이들이 달리고, 공차는 모습 역시 자주 등장하며, 블루스가 원시부족과 상호교류를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린이들과 노는 장면으로

20) 아르다밀로를 사냥해서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살을 발라내고 요리하는 장면(1부 조에족 시퀵스), 사슴 잡아와 내장 빼내고 목 비틀고 불에 그슬려 털을 벗기는 장면(1부 조에족 시퀵스), 원숭이 사냥해서 통째로 굽고 털 벗기고 자르는 장면(2부 와우라족 시퀵스), 원숭이 잡아 통째로 굽고 털을 벗기는 장면(2부 마티스족 시퀵스), 빠라루꾸 사냥하고 죽은 빠라루꾸의 눈 클로즈업 장면(2부 오프닝 시퀵스).

표현되기도 한다.

MBC와 유사한 내용이지만 시각 이미지가 선정적이지 않게 처리된 사례들도 많다. 소 도축장 장면에서는, 도축장에 보낼 소의 분류와 낙인찍혀 끌려가는 씬, 트럭 위의 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처리했다. 마미라우라 보호지역에서의 악어사냥 장면에서는 악어를 죽이는 모습은 대사로만 처리한다. 빠라루꾸 사냥장면에서도 작살을 던지고 줄을 끌어 올리는 등 사냥하는 현장을 보여주지만, 숨을 끊는 장면이나 내리치는 장면은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그 외에도 캐추아족의 파차마마에게 공물을 올리는 의식에서 양의 피를 바치는데 양을 잡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에피소드 1).

6. 논의 및 결론

MBC의 <아마존의 눈물>과 BBC 2의 <아마존> 시리즈를 양적, 질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형식적 구성요소, 숏의 지속시간, 내용(소재), 내러티브 양식, 시각적 스타일에 나타난 차별성을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양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형식적 구성요소에서 MBC는 전문 해설가(김남길)의 VO 내레이션이 있는 현장필름(57%)과 원주민(22%)과 동물(7.6%)의 사운드바이트가 주요 형식적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BBC <아마존>은 다큐 제작자이자 진행자인 브루스 패리의 VO 내레이션이 깔린 현장필름(42.9%)과 진행자의 직접화법(13.6%), 현장교류 사운드바이트(18%)가 주요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숏의 평균 지속시간은 MBC가 6.01초(총 546숏), BBC가 3.62초(총 949숏)로 BBC가 MBC보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며 역동적인 현장감을 전달하고 있다. 내용(소재)의 분포는 MBC에서는 문명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 원시부족의 경우, 원주민의 의식주와 일상에 많은 비중을 두었으며, 문명화의 피해를 받은 부족의 경우 비극적 피해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BBC는 진행자의 부족 방문이나 원주민 문화체험 등의 내용을 많이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분석 결과,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의 기본 스토리와 서사구조에서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MBC <아마존의 눈물>은 인간문명이 가져 온 '원시와 자연의 종말'이라는 거대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자연' 대 '인간문명', '피해자'(원주민) 대 '가해자'(서구인)라는 이항대립적 이야기 구도로 짜여 있다. 또한 복합적 아마존의 환경문제를 '순수원시' > 문명화로 인한 타락 > 파괴된 자연환경과 원주민의 삶'이라는 단순하고 극적인 위기 내러티브로 구성하고 있다.

BBC <아마존>의 경우, 기본 이야기는 브루스 패리라는 서구의 저널리스트 탐험가의 탐험화 경험담으로 이뤄져 있다. MBC의 '피해자' '가해자'의 이분법적 구도보다는, 아마존 '내부인'과 '외부인'이라는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서사구조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진행자 브루스 패리는 양쪽을 매개, 이해하는 주요한 경계인으로 등장한다. 주로 새로운 원주민 마을의 도착-체험-떠남의 구조로 에피소드가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환경과 파괴의 현실의 원인과 해답을 찾기 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탐사 베리페'의 형태를 띠고 있다. MBC와 유사한 부족과 환경

이슈들을 다루지만, 단순화된 선형적 내러티브보다는 다중 에피소드 구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아마존의 현실을 담담하게 보고하는 서사구조를 갖고 있다.

두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내러티브 양식과 대중서사 전략에서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MBC <아마존의 눈물>은 설명적 내러티브 양식에 휴먼드라마적 요소를 융합한 대중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중적 호소력이 뛰어난 김남길이라는 인기배우의 내레이션과 극적 음향 효과, 각 원주민 부족의 이야기를 주인공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편의 휴먼 드라마처럼 구성하는 서사전략을 사용해서 인간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BBC <아마존>은 참여적 내러티브 양식에 리얼리티 TV적 요소를 융합한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다. 타문화 방문과 체험에서 진행자 브루스 패리가 경험하는 ‘통과의례적’ 고통이나 우연한 실수, 돌발상황 등을 강조함으로써 리얼리티 TV적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것은 다큐 진행자 스스로가 현장에 뛰어 들어 자기 자신의 행위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직접성과 리얼리티의 감각을 강조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이를 통해 진행자와 더불어 현장을 대리 경험하는 스타일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대중적 서사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스타일 측면에서도 두 다큐멘터리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아마존의 눈물>은 원시부족의 나체나 이색적인 풍습 등을 클로즈업으로 잡아내면서 관객들에게 특권화된 관음증적 응시의 즐거움을 주고 있다. 특히 순수 원시 부족의 천진무구함은 문명 이전의 인간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보여주는 서구 인류학적 다큐의 민속지학적 스펙터클과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마존의 눈물>은 원주민들의 사냥, 요리 장면에서 잔혹한 장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시각적 선정주의로 볼 수 있으며, 시각적 ‘스펙터클’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원시 부족을 상징하는 동식물 모습을 은유적으로 각 에피소드의 오프닝과 브릿지에 사용하고 있는 것도 드라마틱한 시각적 서사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BBC의 경우 MBC와 유사한 내용을 다룬 장면에서도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영상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등장하는 클로즈업은 외부인을 경계하는 듯한 어린이, 전통 사머니즘 의식에 몰입하거나 외부인을 경계하는 원주민의 모습이다. BBC에서의 ‘스펙터클’의 감각은 자극적인 시각적 이미지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다큐 진행자가 ‘위험상황’에 빠지면서 만들어진다. 이것은 최근 BBC에서 유행하고 있는 리얼리티 TV적 자연다큐멘터리에 자주 등장하는 대중 서사 전략의 영향으로 보인다.²¹⁾

결론적으로 MBC의 <아마존의 눈물>과 BBC의 <아마존> 두 시리즈 모두 대중적 서사 전략을 통해 ‘아마존’의 자연과 환경문제에 관한 메시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면서 동시에 오락적 가치를 갖춘 프로그램으로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마존의 눈물>의 경우, 드라마틱한 내레이션과 휴먼드라마적 구성을 통해 아마존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비극성을

21) 대표적인 작품으로 Steve Irwin의 <The Crocodile Hunter>, Steve Leonard의 <Ultimate Killers> 등을 들 수 있다. 위험한 자연환경에 스타 진행자를 배치하고 동물들을 인간과 같이 하나의 퍼스낼러티로 표현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사용한다. 과격한 스타일에 대한 강조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고유한 특성이며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대중적 요소이다(2006, Horak).

매우 호소력 있고 흥미롭게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BC <아마존>은 다큐제작자의 현장 탐사와 직접 체험을 통해 아마존 환경 파괴 현장에 대한 관객 스스로의 대리경험을 유도하는 서사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MBC <아마존의 눈물>과 BBC <아마존>의 형식적 구성요소, 내러티브 양식, 시각적 스타일 등의 차별성은 한국과 영국의 국가적 차별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분명 개별 제작자와 구체적 제작환경에 따른 차별성도 존재한다. <아마존의 눈물>이 MBC의 창사 특집 대형 다큐멘터리로 기획된 것에 비해, BBC의 <아마존>의 블루스 패리라는 개인 탐험가가 주요 제작진으로, 에피소드마다 각기 다른 협조 제작 인력이 투입된 것도 다중 에피소드적 구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제작사 차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여전히 각 국가에 유행하는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접근 방식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BBC <아마존>은 최근 영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명인 개인을 중심으로 한 리얼리티 TV의 탐사 베리페적 대중서사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MBC <아마존의 눈물>은 거대 서사를 중심으로 휴먼드라마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MBC의 <아마존의 눈물>과 BBC의 <아마존>은 새로운 자연/환경 다큐멘터리의 대중 서사 전략의 효율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MBC의 경우, 아마존의 환경문제에 대한 극적인 서사전략은 강력한 환경 보호 메시지 전달과 시청자들의 감정이입에 효과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시의 마지막 기록,' '사라져 가는 낙원' 등의 단정적 표현, 시각적 선정주의, 원시부족 문화의 스펙터클화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의 현실을 지나치게 이분법적 구도를 물고가는 파국적 선언과 주장은 자칫 환경주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동가(propagandist)'적 요소를 안고 있다.

한편 BBC의 경우, 이미 서구가 자연과 원주민의 재현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성찰이 있어왔기 때문인지 원시부족의 재현에서 시각적 선정주의는 그리 많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아마존 환경문제에 대한 단정적 선언과 강력한 환경보호 메시지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추적하고 파악하는 관찰자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²⁾ 그러나 개인 진행자의 직접 경험 행위와 의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도 환경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2) 영국 자연사 다큐멘터리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아텐버러(David Attenborough)는 유명한 환경 운동가이지만,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단정적'이고 현실개입적인 발언을 극히 자제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BBC 저널리스트의 기본자세라고 말하고 있다.

■ 참고문헌

- 문재철 (2004). 현대영화에서 내러티브와 스펙터클의 관계: 공상과학영화의 특수효과와 관객성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가을 겨울호, 167~190.
- 원용진 (1999). 담론적 접근으로 풀어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황인성(편), 『텔레비전 문화연구』 (135~168쪽). 서울 : 한나래.
- 최현주 (2009). 한국 TV 환경 다큐멘터리에 나타난 환경문제 인식의 변화: KBS <환경스페셜>과 EBS <하나뿐인 지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권 2호, 569~606.
- 허태정 (2009, 2). 제작과정은 '북극의 악몽' 결과는 명품다큐. 『신문과 방송』, 458권, 98~101.
- Banks, M. (1994). Television and anthropology: An unhappy marriage? *Visual Anthropology*, 7, 21~45.
- Chatman, S. (1978). *Story &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 fil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hris, C. (2006). *Watching wildlife*.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lark, G. E. (2007). Environment on Film. *Environment*, 49(7), 3~5.
- Cottle, S. (2004). Producing nature(s): on the changing production ecology of nature history TV, *Media, Culture & Society*, 26(1), 81~101.
- Dijk, J. V. (2006). Picturizing science: The science documentary as multimedia spectacl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9(1), 5~24.
- Fry, A. (2006). Filmmakers and the environment: David Attenborough. *RealScreen*, (Jul/Aug), 12~15.
- Furese, E. (2002). How can global journalists represent the 'other'? : A critical assessment of the cultural studies concept for media practice. 3(1) 57~84.
- Horak, J. (2006). Wildlife documentaries: From classical forms to reality TV, *Film History*, 18(4), 459~476.
- Jensen, E. (2008). Films that have a point, *Television Week*, 27(27), 24~27.
- Kilborn, R. (2006). A walk on the wild side: The changing face of TV wildlife documentary, *Jump Cut*, 48(winter)
- Milamud, R. (2008). A new breed of environmental film.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4(33).
- Mitman, G. (1999). *Reel nature: America's romance with wildlife on fil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Nichols, B. (1981). The Voice of Documentary, in A. Rosenthal(ed.), *New Challenges for Documentary*.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Nichols, B. (1991). *Representing Reality: Issues and Concepts in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1).
- Nichols, B. (2001). *Introduction to Documentary*.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 Nolley, K. (1997). Finding alternatives to gossip: Reflexivity and the paradigm of traditional documentary, *Visual Anthropology*, 9, 267~284.
- Raheja, M. H. (2007). Reading Nanook's Sime: Visual sovereignty, indigeneous revisions of ethnography, and Atanarjuat(The fast runner). *American Quarterly*, 59(4).

- Scott, K. D. (2003). Popularizing science and nature programming: The role of “spectacle” in contemporary wildlife documentary, *Journal of Popular Film & Television*, 31(1), 29~36.
- Scott, K. D. & A. M White. (2003). Unnatural History? Deconstruction the Walking with Dinosaurs Phenomenon, *Media Culture Society*, 25, 315~332.
- Sherrill, G. (1996). *Exploration as construction: Robert Flaherty and Nanook of the North*, 1996. 59. 123~147.

최초 투고일 2010년 4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0년 5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0년 5월 24일